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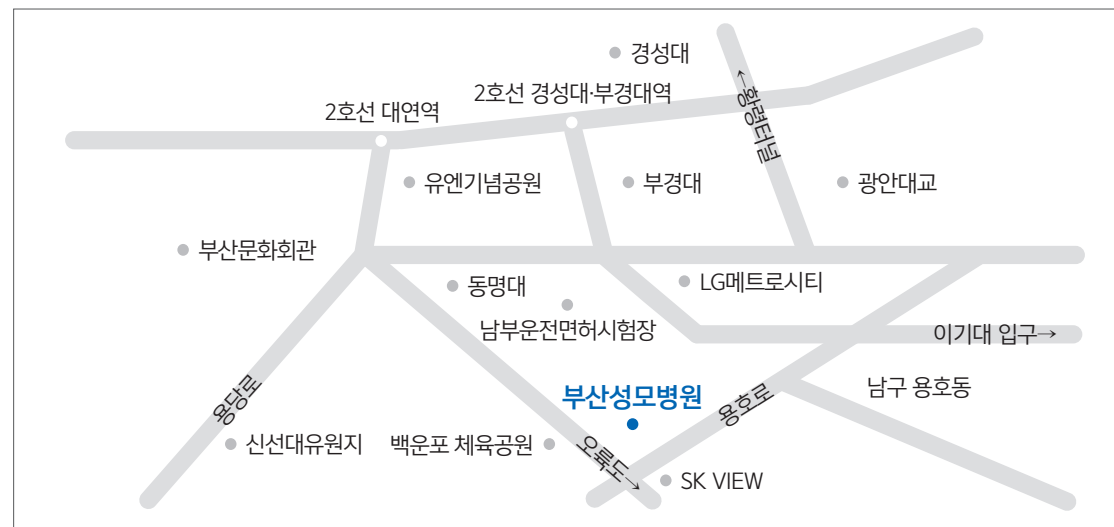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
오후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

※ 단,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비뇨기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933-7969
-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933-7133
-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933-7777

찾아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www.bsm.or.kr



2021년 VOL.19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감 사 예 찬

이 해 인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하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CONTENTS

동행 2021년 · VOL. 19호

권두 이야기

02

감사예찬 / 이해인

우리들의 이야기

04

1. 선입견을 깨는 시간과의 마주침 / 조현태
2. 호스피스에서의 값진 경험 / 김현경
3. 호스피스병동에서의 내 삶의 변화 그리고 감사함 / 윤정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08

후원회 가입안내

14

이용안내

15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16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①

	선	입	견	을		개	는		
	시	간	과	의		마	주	침	



조현태
내과 전공의



처음 소식지에 글을 써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족한 저의 부족한 글 솜씨가 탈로 날까 부끄러웠고, 무엇을 써야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지난 몇 주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어 놓고자 합니다.

먼저 근무 전에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병동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 생각에도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둔 환자들에 대해 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하나 막막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할까,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좀 더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등 근무 전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먼저 느낀 것은 무거운 분위기일 것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차분하면서 안정된 병동 분위기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지만 병의 무게감에 눌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환우들과 그 보호자들께서 제가 근무 전 생각이 기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환우들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섭망, 식이 장애 등 의학적인 부분이 남은 생의 시간동안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돌봐주시는 두 분 과장님들의 열정과 지성에 감탄 했으며, 배우는 입장으로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회진 때 과장님들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나, 진실에서 의사로서의 마음가짐 또한 배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호스피스 간호사 선생님들의 지식과 열정, 능숙함에 놀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의사들에게 알려주었으며,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 해결해 주는 능숙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 환우나 보호자 분들과도 단 한 번의 큰소리가 나지 않으며 보호자들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보며, 호스피스 병동의 가장 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분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찾아주시는 수녀님들의 영적인 치료는 본원 호스피스 병동의 강점이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시술로는 한계가 있어 힘들어 하시는 환우 분이 계셨는데 수녀님의 기도 시간에 너무나 평안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보며 이런 영혼의 짐을 털어드리는 것 또한 환자의 신체적 짐을 털어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사 선생님, 신체적인 활동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 등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시면서 생긴 노하우와 능력으로 남은 환우분들의 시간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었습니다.

성모병원의 미션과 비전은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병을 앓고 계신 환우 분들이 있는 병동이었지만, 이 전인적인 치료와 병의 고통중에 있는 분들을 보살피는데 있어 이보다 적합한 병동은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글 솜씨와 지식으로 인한 줄문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②

	호	스	피스		에	서	의		
	값	진		경	험				



김현경
완화의료센터
간호사



2019년 10월, 호스피스에서의 첫 근무 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고등학생 때 호스피스라는 개념에 대해 책으로 처음 접하고 호스피스간호사가 되어서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느끼고자 했었고 부산성모병원에 입사하여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매우 컸었다. 책으로만 접했던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오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입사하여 몸소 느껴보니 내가 책으로만 습득했던 지식은 정말 좁은 개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을 위해 간호사로서 내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의료진, 성직자, 사회복지사가 서로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넓은 개념이었고 내가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환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새내기거나 어리숙해 보이는 신규 티가 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을 케어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감정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했는데 초반엔 그게 너무 어려워 놓치는 부분이 많았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중증도가 이미 많이 높아져서 온 상태이고 과거에 앓았던, 또는 현재 앓고있는 질환들이 많아 신경 써서 간호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났고 그걸 신경 쓰다 보면 보호자나 환자에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해 주지 못할 때가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저 간호사는 항상 '바빠 보이는 간호사'로 부르곤 했다.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와 라포 형성이 잘 될 리가 없었고 바빠 움직이다 보면 그들의 감정을 케어하기 어려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나에게 바라는 사항들이 나에게도 닿았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지금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막막했다.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친절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바쁜 시기에는 친절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기에 몇 달간은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다. 일도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케어도 둘 다 잡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우연히 선배간호사를 '칭찬하는 글'을 보게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친근하고 편하게 대해 주었다는 글을 보고 난 그 선배간호사가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정말 특별한 스킬이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말투나 표정만으로도 그들을 웃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내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했다. 한 보호자는 그 선배간호사 선생님 언제 오시냐며 환자가 그 간호사만 계속 찾는다고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 환자의 직업이 군인이셨는데 인사할 때 충성을 붙여주시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어 마음을 많이 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행동임에도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는 세심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된 나는 친근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신체적인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도 맞추려고 하였고 말투에도 친근감이 묻어나게끔 바꾸니 보호자나 환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저절로 변화했다. 친근감 있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환자들은 의료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솔직하게 털어놔 주었다.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그들이 편안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서 인간의 존엄함과 삶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또 함께 일하는 동료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수 선생님, 팀장님도 많이 부족했던 나를 혼내기보다는 격려와 조언, 응원으로 보살펴 주셔서 3년 차가 다되어 가는 지금,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뚝뚝 뭉친 간호사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일했던 경험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호	스	피	스	병	동	에	서	의		
내	삶	의	변	화	,					
그	리	고	감	사	함					



윤정현
보조활동 인력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리워지는 11월의 끝자락입니다.

어느덧 가을을 마감하는 인사를 하는 듯, 곧 다가올 겨울 풍경이 짙어지는 이맘때면 제게도 생각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을 대장암으로 떠나보낸...

그땐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가보았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은 마지막 모습을 보며 삶에 대한 회의와, 미안함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하여 저도 자연스럽게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경험도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Hospice란” 라틴어 “Hospes(손님)”에서 유래된 말로 중세시대에는 성지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휴식처”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죽음을 앞 둔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한 임종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웃사랑, 인간존중’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몸담기 전 저는 막연히 어둡고, 침울하고... 절망만이 가득찬 차가운 분위기일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곳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가족들과 편안한 상태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고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며, 마지막 여생을 잘 정리하고 가시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그 동안 돌아켜보니 기억에 남는 환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분은 특이한 ○○○ 제품의 아이스크림을 드시길 원하셨지만,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잘 모르셔서 대신해 사다 드렸더니 마지막에 두 스푼 정도 드시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얼마나 고마워 하셨는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두 손갈이나 맛있게 먹었어 하시며 절절해 하시던 모습.

또 세실리아라는 분은 부종으로 부은 발에 꼭 끼는 양말을 신고 계셔서 선물 받은 핑크빛 수면 양말을 가져다 신겨 드렸더니 너무나 따스하고 포근하다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배시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등...

때론 지친 환자분이나 예민한 보호자 분을 보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나의 조그만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보람된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곳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들에게 배우고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말씀은 없지만, 저는 그 분들이 마음으로 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테살로니카 1서 5장 16~18절을 보면 사도바오로가 말씀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실 기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감사”입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생활은 동기부여라할까?

그 어느 순간보다 값지고 소중하며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때 순간마다 나를 돌아다보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시귀처럼 환우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답고 평온하도록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적은 힘이나마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돌봐야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끝으로 호스피스 병동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애쓰시는 언제나 밝고 다정다감하신 수녀님, 큰 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팀장님, 눈높이로 환우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쓰시는 수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한 간호사님들, 천사같은 봉사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고통에 계시는 환우님들과 그 가족분들께 감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또한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절망과 우울감을 이겨내고 마지막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동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분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화이팅!!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7월

복날
삼계탕 데이



9월

추석 이벤트
송편빚기 & 게임 - 투호, 고리던지기, 선물제공



10월

완화의료주간
호스피스의 날 행사



11월

빼빼로데이



환우 세례식, 대세, 봉성제 등



병동미사



생신축하



가족교육



요법 현장



음악회



가정형 호스피스



소진 예방활동: 플레이팅 도마, 나무반지 만들기



추석선물 나눔



원예요법



소원 들어주기



이미용 서비스



코로나 예방키트 나눔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 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 서명: _____

금액: 일금 _____ 원(₩) _____)

☐ 일시기부:

☐ 정기기부: 매월 _____ 원 _____ 회(년)

※ 납부안내: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동의서명: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 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 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933-7137 Fax 051)932-8636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타 기관 환자



-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051)933-7777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입원형 호스피스: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933-7253
- 가정형 호스피스: 비뇨의학과 진료 051)933-7861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051)933-7133
- 가정형: 051)933-7969
- FAX: 051)932-8636